

## 엄마를 지키는 혜택 달력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4	5	6	7	8	9 설날 연휴	10 설날
엄지 설 대전						
11 설날 연휴	12 대체공휴일	13	14	15	16	17
엄지 설 대전						
18	19	20	21	22 코엑스 1층 B홀 B140-B141	23	24
25	26	27	28	29	3/1 삼일절	3/2

N | 튼튼맘스 

## UMJI EVENT

엄마를 지키는 튼튼맘스 카카오  
플친 친구 맷고 할인 받으세요!

트튼맘스 카카오톡 플친하면  
공식 스토어 1,000원 할인 쿠폰 증정!

- QR 코드 접속 + 플친 친구 맷기
- 공식을 로그인
- マイ페이지 > 쿠폰 메뉴에서 사용하세요!

예비맘 & 출산맘 아이품고  
임신출산 축하박스 추첨 이벤트

출산 예정 예비맘, 4개월 이내 출산맘 매월 100명을  
추첨해 엄마와 아기 선물을 보내드려요!

- 아이품고 회원가입 + 앱 다운로드
- 축하박스 신청 품 작성
-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응원 댓글작성  
@ipoongo



엄마를 지키는 한장

## 엄지PAPER

Vol. 9

2월 15일~18일 튼튼맘스 베이비페어 드림마켓에서 만나요!

February 2024



## 2월 시샘달

잎샘추위와 꽃샘추위가 있는 겨울의 끝 달

## Universe

최대 80% 할인 혜택  
베이비페어 드림마켓

## Mention

만 0~1세  
부모급여 인상

## Join

당신은 이미  
좋은 엄마랍니다

## Interest

트튼맘스 카톡 플친하면  
1,000원 쿠폰

엄지UMJI  
아기를 지키는 엄마를 지킵니다

## UMJI NEWS

이달의 소식

트튼맘스 베페 오프라인 드림마켓  
온라인 선물마켓 개장!

4년 만에 돌아온 트튼맘스 베페 드림마켓!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만큼 전 제품 최대 80% 특가로 준비했어요~ 궁금하셨던 제품들을 모두 직접 먹어보고, 사용해 보고, 만져 보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트튼맘스 인스타그램 팔로우만 해도 정성 가득 사은품을 드리니 편하게 즐겨 주세요! 사전 예약 이벤트 참여 후 방문하신 선착순 500분께는 저세상 촉촉한 베어밸리 비건 임산부오일 (정가 34,000원 상당) 증정 혜택까지!

▼사전 예약 이벤트 참여하기



이달의 신상

귀여움 한도 초과!  
베어밸리팩 동생 마꼬팩 출시

2024년에는 다꾸 말고 복무 어띠세요?  
SNS 임산부 대란템 베어밸리팩의 동생 '마꼬팩'이 출시되었거든요~! 베어밸리팩보다 작은 사이즈의 마꼬팩은 베어밸리의 동생이자 귀여운 비숑이예요.  
임신 중 건조한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 동시에, 임명아웃 팩으로 아이와 소중한 추억을 만드실 수 있어요~!  
내 취향껏 직접 복부를 꾸미고, 귀여운 인증샷도 남겨 보세요~ 한도를 넘어선 귀여움으로 중무장한 마꼬팩의 매력에 풍당 취하게 될 거예요~  
▼사용법과 복부 케어 마사지 비법 보러가기



이달의 뉴스

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원으로 부모급여 인상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되요.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음·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UMJI PRENATAL FAIRY TALE

이달의 태교동화

## “모든 걸 온전히 내어 주는 손길”

“동글동글”, “몽실몽실”

마꼬와 베어리가 서로를 쓰다듬는 소리예요.

서로를 향한 손길은 봄내음을 쏟아내는 벙꽃 나무처럼 향기롭고, 더운 여름밤을 청량하게 만들어주는 별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오요.  
맑은 가을 하늘 뭉개뭉개 피어나는 구름처럼 폭신하기도 하고, 겨울에 소복이 쌓인 눈처럼 보드라워요.

'이보다 더 따뜻할 수 있을까?'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긴 마음이 손끝에 전해질 때마다 부드러운 촉감에 깜짝깜짝 놀라요.

마꼬와 베어리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모든 걸 온전히 내어주는 손길을 '사랑'이라고 해요.  
따뜻한 마음이 손 끝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전율은  
평생의 삶 동안 안고 갈 소중한 마음이에요.

우리 곁으로 찾아와 준 아가야.

너를 품고 있었던 사계절, 첫사랑의 손길을 영원히 잊지 않을게.  
부디 사계절처럼 다채로운 삶을 경험하며 무럭무럭 자라나렴.



## UMJI MENTO

## “아기를 지키는 엄마, 당신은 이미 좋은 엄마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력 23년 차 국제모유 수유 전문 간호사를 양성하는 모유사랑 창립자 윤명희 대표원장입니다. 2005년 한국에서 시작된 모유사랑 모유육아 클리닉은 100% 국제적인 모유 수유 분야 라이선스를 보유한 면허 간호사로 구성되어 현재 45명의 전문가가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

지난 20년이 넘도록 모유 수유 증진과 저출산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저로서는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비부모들이 임신·태교·모유육아·아기 돌보기 등의 기본적인 육아 지식과 스킬에 대해 사회적으로 제공받아야 할 학습 기회를 얻지 못한 현실이 안다깝습니다. 유니세프(UNICEF)에서는 여성 개인의 의지와 역량만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성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유 수유의 장점 및 이를 하지 않을 경우의 단점이 되는 결과 등을 이해한 후, 모유 수유에 대한 자기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결정을 돋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육아를 하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데 동참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 4개월의 짧은 모유 수유 기간

국내 “모유 수유 중단 시기 평균 16주”로 발표되었습니다(통계청, 2021년).

모유 수유를 낮다고 평가받는 유럽의 평균 모유 수유 기간이 약 8.7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 모유 수유 현실에 대해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양육의 를 모델을 접하기 힘든 현실에서 책이나 SNS를 따라 해보지만 마음처럼 되는 모유육아, 모유사랑 전문가가 곁에서 돋겠습니다

## 이미 좋은 엄마랍니다.

소중한 아기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고 옳은 선택만 하고 싶어 최선을 다하는 엄마. 그 사랑을 지닌 당신은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좋은 엄마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좋은 엄마랍니다.  
‘아기를 지키는 엄마를 지킵니다’ 엠지스쿨을 통해 올바른 모유육아 정보를 나누는 건강한 브랜드가 있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유사랑도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며 길을 걷는 동반자의 마음으로 응원하며 엄마의 평안한 육아를 위해 함께 합니다.

엠지스쿨 멘토의 전체 강의를 듣고 싶다면 [엠지스쿨 유튜브](#)를 통해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를 만나보세요!모유사랑 분당본점  
윤명희 대표원장님모유사랑 모유육아클리닉  
[www.moyu.co.kr](http://www.moyu.co.kr)

## UMJI CREW

이미 엄마가 처음 엄마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 양배추 가슴팩, 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트튼맘스 엄마생활건강연구소입니다.

엄마들은 젖몸살에 양배추를 사용했을까? 한국에서 엄마들이 출산 후에 미역국을 먹는 것처럼 양배추도 한국의 민간요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양배추를 이용한 방법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게다가 양배추에 관한 연구 논문들도 많죠~!  
대한 모유 수유의 사회나 간호학과 논문에서 유방울혈과 양배추 요법에 관한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생양배추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죠.

황성분으로 인해 특유의 냄새가 나기도 하고, 무능력이라고 하더라도 수유할 땐 조심스럽잖아요.

당장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트튼맘스의 양배추 가슴팩이 100만 장 이상 판매되고, 국민템이 된 이유! 충분하지 않나요?



From. “아기를 지키는 엄마를 지킵니다” 트튼맘스